

한국의 낙농산업, 어떻게 할까?



김 현 옥

낙농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의 낙농산업은 낙농인의 것만이 아니며, 유업체의 것도 아니고, 각종 축산관련 단체의 것은 더욱 아니다. 한국의 낙농산업은 국민의 것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국민이 준 과자의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려는 낙농인의 노력이 국민의 눈에 비쳐져야 된다.

한국의 낙농산업은 지난 30여년간 정부와 유업체와 낙농인이 힘을 합쳐서 이룩한 민족산업이다. 한국의 낙농산업은 수많은 파동과 수급 불균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 국민의 영양과 건강 및 체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산업이다. 그러나 한국의 낙농산업은 정부의 보호속에 안주하고 있었으며, 장기적인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국제적 시장개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국제화 추세를 인식하지 못한채 유업체들은 극심한 상호비방과 부도덕한 암시적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는 원유와 시유의 관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94년말에 한국은 8,700만불의 유제품을 수입했으며 가장 큰 수입 유제품은 탈지분유, 유장분말, 케이스이며 유제품 수입은 다품목화되면서 수입량도 증가될 전망이다.

얼마전 부터 한국의 낙농이 위기에 처했다고 야단이다. 국산 분유가 1만3천톤이나 쌓여 있으며 소비가 크게 늘어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단체는 분유소진 대책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유업체는 국산분유의 소비를 늘리는 척 하면서 원유대금 지급이 어려워니 쌓여 있는 분유의 소비를 위해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위기로 느끼는 현상환은 오

래 전부터 예고되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예전에도 있었고 별로 새롭지도 않다. 우유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라면, 그렇게 낙농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컸더라면, 학계가 그렇게 오랜동안 제안하여 왔던 낙농제도의 개선안(낙농기구를 통한 집유의 일원화, 검사의 공영화, 품질의 일류화, 국제적 대응, ……)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리 없지 않았는가.

낙농업계는 제품 가지고 싸우고, 품질가지고 싸우고, 집유선 가지고 싸우고, 우유검사 가지고 싸우고, …… 우리의 머리에는 낙농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싸움의 장면만이 생생할 뿐이다. 한 마디로 해야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작은 이해관계로 업체간에 싸움만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았는지. 그러나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르게 국제화 되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은 급격히 개방되고 있고 국내 낙농시장은 국제적인 낙농제품의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끼리의 싸움이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낙농산업계는 모를 리가 없다. 한국의 낙농단체들은 이런 다툼만을 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이제 낙농산업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개방된 시장변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땅의 누구도 낙농과 낙농민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낙농산업은 제도습과 제자리를 찾는 힘든 노력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낙농은 풀과 청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풀사료를 주로 먹이면서 하는 것이며 그래야 낙농의 기본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산촌에서 낙농을 해야만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품질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고 오래 젖을 짤 수 있으며 젖생산의 경제성도 높일 수 있고 국토의 보호관리와 지력의 증진을 피하여 전체적으로 국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낙농산업의 제도습 찾기를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도와주고 도시근교의 낙농을 과감하게 억제하여 이땅에서 오래 오래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낙농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터전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한국의 낙농인은 시급히 국제화되고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한국의 낙농인이 국제화되야 한국낙농산업도 국제화되고 우유의 품질도 국제화되며 세계 일

류 우유가 되는 것이다. 국민산업인 낙농업의 관리와 발전을 개인 기업체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 개인 유업체에게는 업체의 이익이 우선이지 낙농인이나 한국의 낙농산업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낙농인은 자기가 생산한 신선유제품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주체 의식을 갖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원유를 살균하여 최고의 신선유로 만들어 낙농조합을 통하여 판매하므로써 가공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낙농인에게 돌려주고, 낙농인이 지역을 지키며 잘 살 수 있게 되며 생산한 우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도록 되어야 된다.

조합들도 조합만이 살고 발전하려면 안된다. 조합은 조합 본래의 임무에만 충실한 조합으로 거듭나서 조합원과 한국의 낙농과 축산만을 위해 일하는 조합, 국가의 밑거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합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된다. 한국 낙농의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또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힘을 합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더욱이 위기는 많은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낙농인은 끈임없이 낙농의 위대한 기능과 신선유제품의 가치를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한다. 이제 한국의 낙농산업은 낙농인의 것만이 아니며, 유업체의 것도 아니고, 각종 축산관련 단체의 것은 더욱 아니다. 한국의 낙농산업은 국민의 것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국민이 준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하려는 낙농인의 노력이 국민의 눈에 비쳐져야 된다.

낙농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유를 소비하는 국민이며 우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한국의 낙농은 국민과 함께 커갈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낙농업을 담당할 낙농생산 및 유가공 기술자의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에 계속 투자하여 한국낙농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될 것이다. 기술과 교육에 투자없이 낙농산업의 미래는 없으며 이러한 투자는 낙농인과 낙농인 단체가 책임지고 해야되는 낙농인의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